

민주, 박순애 無청문 임명 등 부실인사 공세

“국회 정상화 찬물… 브레이크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무(無) 청문 임명 강행 등 윤석열 정부의 부실인사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다.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순애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 것은 내내 국민 간 보기만 하다가 악수를 둔 것”이라며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민주유준준 전 전력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며 “취임 50일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팜바닥에 떨어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보낸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다니 국회가 정상화되는 첫날에 찬 물을 끼얹듯 무청문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며 “심지어 오늘은 (도어스테핑에서) 연이은 부실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날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대해선 “퍼펙트스토밍의 민생경제 위기 속에 입법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는 입법으로 국회의 장이라도 먼저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결단 그리고 대응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며 “김진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無청문 임명 강행 인사 모두 자진 사퇴시켜야” 尹 발언 관련해선 “국정철학이 전 정부 탓인가”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 특위와 인사청문 특위를 제안한 만큼 한편으로는 원구성 합의를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민생 입법과 인사 청문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같은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은 없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막무가내식’이며 ‘브레이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선 반시지탄(半時之譴·기회를 놓치고 일이 지나간 뒤에 때늦은 탄식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이라고 비유하며 민취 읊조른 전 전력과 조교 갑질 의혹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원칙 없는 인사 대참사의 종착역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 지인인 사법부 장관 보은인사 등 인사 검증 자체가 무의미하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그런데 송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의 외모에 상중하를 매겨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대기업 규제에도 반대하는 재벌 옹호자로 알려져 공정위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 원내부대표는 “검증이 무슨 소용인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

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기준부터 마련하고,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임명 강행한 국세청장, 합참의장, 교육부장관은 모두 자진 사퇴시켜야”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선 소장파인 이태희 의원은 현 상황을 역대급 인사참사에 비유하면서 윤 대통령이 ‘전 정권 인사 중 훌륭한 사람 봤냐’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 찬성 호응방식 김인철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읊조른 박순애, 어제는 성희롱 발언 송옥렬까지, 인사 참사가 어벤저스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과 사과로도 모자랄 판에 윤 대통령은 오늘 또 이전 정부 핑계를 댄다. 문재인 정부 타령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인가’라며 “본인은 물론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이전 정부 출신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었나 보다. 대통령이 뱉은 말에 최 의원이 맞게 생겼다”라고 강조했다. /뉴스

도의회, 예결특위 구성

위원장 - 진형석 도의원
부위원장 - 김성수 도의원



진형석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

전라북도의회는 5일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형석 의원을 비롯한 11명 위원을 제12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날 선임된 예결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의 갖고 위원장에 진형석(더불어민주당 전주2)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1년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다.

제12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7일부터 전라북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9월 중에는 전라북도 및 교육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11월 말부터는 전라북도 및 교육청 2023년 본예산 예산안 심의 등 마라톤 일정이 연달아 계속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진형석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중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좀 촘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심사해 연간 14조원의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 활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재정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경수 기자

“의회 역량강화 내부시스템 마련”

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김성수 도의원



전북도의회는 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고창1) 의원을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도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회와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 독점을 우려하는 도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변화와 혁신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을 선택해주시는 전북도민의 재신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를 초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익산시의회 5·6·7대 의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11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경수 기자

“통큰 협치 · 살아있는 대안 제시”

제9대 무주군의회 개원식



제9대 무주군의회 개원식이 5일 무주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안동선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 7명은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식에서 의원 선서와 함께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며 군민의 대표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해양 의장은 개원식을 통해 “제9대 무주군의회는 앞으로 통큰 협치와 살아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을 견인할 수 있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견고한 협력체제와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갖춘 의

정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발 앞서 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방향을 예측하고 이끌어가는 견인력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9대 무주군의회 의원들의 무주군청 실과원소 방문을 끝으로 개원식은 마무리되었으며, 무주군의회는 개원식 다음날인 6일 기관·사회단체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서민 경제 고통 덜어드릴 법안 추진할 것”

민주, 직장인 밥값 지원 · 유류세 인하법 등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서민 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 구성과 관련된 큰 고비를 넘어서 우선해서 민주당의

입법 과제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저의 당의 취지이다”라며 “또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

특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비과세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오늘 우리 당이 공식 발의한다”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은 안전산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소위 자연에너지인 풍력,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되는 그린 수소가다.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의 산업을 키울 마지막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대적인 흐름과 달리 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뉴스

제9대 장수군의회 개원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장정복의원

부의장
이중섭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최한주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광훈의원

김남기의원

김남수의원

유경자의원

장수군의회
 JANGSU COUNTY COUNCIL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 김영자 의원
부의장 - 황배연 의원

김제시의회는 5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4인의 김영자 의원을, 부의장에는 조선의 황배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후보자 등록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게 된 김제시의회의 의장으로 4인의 김영자 의원 3인의 이병철 의원이 부의장에는 재선의 이정자 의원과 조선인 황배연 의원이 입후보했으며 제9대 시의원 14명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김영자 의원이 9표, 황배연 의원이 8표를 득표해 각각 전반기 의장, 부의장에 당선됐다.

신임 김영자 의장은 “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

의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민의 뜻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견제와 균형, 조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배연 부의장은 “동료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당을 초월하여 시민생활 개선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협력하는 모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단 선출 이후 오후에는 개원식을 열어 시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열린의회의 출범을 알렸으며 6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제=곽도태 기자